

해외의약뉴스

자기 전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심장보호에 효과적이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요

최근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예방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피린을 자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아침에 복용하는 것보다 혈소판 활성을 더욱 감소시키며, 소화불량이나 기타 부작용 발생 또한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대규모의 추적연구가 진행되어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심장 질환 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이전과 동일한 시간에 복용하라고 전했다.

키워드

아스피린, 심장마비, 뇌졸중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는 것은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의 고위험군에게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류에서 혈소판이 응고되어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예방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밤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혈액을 묽게 하고, 잠재적으로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차성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심장마비 생존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3개월 동안 피험자의 절반은 아침 기상 후 100mg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 전에 동일한 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부터 심장 관련 사고들은 아침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의료 전문가들은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혈소판 활동이 아침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 아스피린을 자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아침에 복용하는 것보다 혈소판 활성을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적인 신체리듬에서 아침에 혈소판 활성이 증가되는 현상을 차단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기 전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소화불량이나 기타 부작용 발생이 적은 것으로 관찰됐다. 한편, 아스피린을 자기 전에 복용함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복용 시간에 따른 혈압의 차이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Gregg Fonarow¹⁾ 박사는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수가 너무 적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대한 예방 효과에 있어서 자기 전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아스피린을 밤에 복용할 필요는 없다. 대규모의 추적연구가 진행되어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심장 질환 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이전과 동일한 시간에 복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Dallas에서 개최되는 American Heart Association 미팅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미팅에서 발표된 연구는 의학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기초적인 연구로써 봐야한다.

■ 원문정보 ■

<http://consumer.healthday.com/general-health-information-16/aspirin-news-46/aspirin-may-protect-heart-more-if-taken-at-bedtime-682260.html>

1) Spokesman for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